

폭력 예방교육 이수 하위권으로 부진

공예진 기자 yejin514@khu.ac.kr

우리학교가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예방교육) 학생 참여율 저조로 부진기관으로 선정됐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 5개 법에 따르면 대학생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연 1회 의무로 받아야 한다. 각 대학 인권센터가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2023년도 우리학교 학생 참여율은 성폭력 8.1%, 가정폭력 8.4%로 전국 대학 중에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각각 8.5%와 8.7%였던 2022년보다 하락한 수치로, 전국 대학생 참여율 평균인 54.7%에 훨씬 못 미친다.

여성가족부는 교육 이수율 증진을 위해 매년 이수율이 50%를 넘어가지 않는 학교를 부진기관으로 선정한다. 부진기관으로 선정될 시 대학 평가 감점, 기관장 특별 교육, 가족친화인증 탈락 및 이에 따른 연구과제 선정 시 가점 배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해 10월에도 우리학교는 '2022년 부진기관'으로 선정돼 인권센터장이 여성가족부의 특별 대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타 대학은 부진기관 선정을 피하고자 예방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혜택을 주거나 강제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홍익대는 2시간 내외의 예방 교육을 들으면 5시간의 봉사 시간을 부여한다.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는 교육 미이수자의 성적 열람을 제한하고 있으며 고려대는 예

방 교육 이수를 졸업 필수요건으로 지정했다. 작년까지는 교육을 듣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여러 강의를 모두 들을 수 있게 하는 '구제 강의'를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마저 시행하지 않아 정해진 기간에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강제성을 부여한 학교의 경우 학생 교육 참여율 80% 이상을 기록했으며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상위권에 위치했다.

우리학교는 교육 이수에 별도의 혜택과 강제성을 주진 않는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 미이수자의 성적 열람을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하고자 했으나,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와의 의견 차이를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센터는 "이수율 증진을 위해 기숙사 운영 부서와도 협업을 시도했지만, 기숙사 자치회의 반대에 부딪혀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인권센터는 "학생들 개인 메일로 참여를 독려하고 여러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인권센터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학생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 같다"며 "학생들이 예방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좋겠다"고 했다. 권경빈(행정학 2022) 씨는 "예방 교육을 강제적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교육의 효과가 커질 것 같지는 않다"며 "학생에게 교육 내용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막무가내식 행정문의 자제해야

황인찬 기자 philip0503@khu.ac.kr

【국제】수강신청 기간 막무가내식 행정문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강신청 기간 기계공학과 학생회는 '학과사무실 전화 관련 학과장님 중요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해당 공지에서 이원구(기계공학) 학과장은 "최근 비정규직을 운운하며 학과사무실에 전화해 수강신청을 해결하려는 무례한 학생의 행태가 드러났다"며 "이런 몰상식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부가 전체 분위기를 망칠 수 있으니 학생 여러분이 먼저 나서서 자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학과장은 "구성원 모두가 조화를 이뤄나가기 위해 무지한 말과 행동은 자제 해달라"고 덧붙혔다. 이러한 막무가내식 문의는 비단 기계공학과만의 일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공과대학 행정실에 근무하는 A씨는 "OT마다 행정실 직원도 누군가의 자녀이기에 존중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행정실 마음대로 수강신청을 해줄 수는 없는 일이라 정해진 절차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과대학 행정실은 수강신청 기간 학생들에게 수강신청은 교과목 선택의 기회는 제공하지만, 특정 교과목의 수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공지한 바 있다.

전자정보대학 행정실에 근무하는 B씨는 "학번 이름도 안 밝히고 다짜고짜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기계공학과 학생회는 무례한 행정문의의 관련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비단 막무가내 행정문의는 기계공학과만의 일은 아니다. (사진=김동희 기자)

며 "이런 경우 학생인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님께 먼저 문의하고 해결이 안됐을 때 행정실로 문의 달라고 안내하고 있어 절차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덧붙혔다. 또 다른 직원 C씨는 "요즘 같은 시기엔 행정문의가 매우 많다"며 "감정 노동자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응용과학대학 근로학생 D씨는 "무례한 문의를 종종 받는다"고 전했다.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해당 사안에 관해 "수강 신청이 문제인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막말하는 사람은 수업 들을 자격이 없다", "아무리 난처해도 학교 시스템 이해가 우선이다", "이건 정말 선 넘었다"라며 문제에 공감하는 의견도 나왔다.

과도한 문의 방지를 위해 정원 초과강의의 추가 수강등록 조건을 만든 단과대도 있었다. 응과대는 자연계열 전공기초 과목 추가

수강등록 허용자를 금 학기 미이수 시 ▲졸업이 불가한 자 ▲재수강이 불가한 자 ▲전공진행이 불가한 자로 제한하는 공지를 게시했다.

하지만 수강신청 시 근본적인 행정 절차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전자공학과 최민석(전자공학) 교수는 "학생들이 수강 가능 문의 연락을 취하는 시점도 제각각이고 받는 이메일 수도 150통에 달해 감당할 수준이 안 된다"며 "연락한 학생들을 받는 기준도 없어 선착순으로 하고 있는데, 이 방식이 공정한 건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학교 차원에서 추가 신청을 위한 공식적인 루트로 문의의 경로를 통일했으면 좋겠다"며 "추가 문의시점도 확실히 정해 교수자가 학생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면 혼선도 줄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제73기 신입기자 공개모집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월) ~ 3월 24일(일) 서류제출 마감

지원자격

- 경희대학교 양 캠퍼스 재학생, 휴학생, 복학생 (1학년, 2학년)
- 학생자치기구에 소속되지 않은 자

모집전형

- 취재기자(0명) : 3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자
- 미디어콘텐츠팀(0명) : 영상 제작 및 포토샵이 가능하거나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는 자
- 사진기자(0명) : 사진 포트폴리오가 있거나, 관심이 있는 자

선발일정

- 1차 서류제출 마감 : 3월 24일(일)
- 2차 면접평가 : 3월 26일(화) ~ 27일(수) 오후 6시 이후 (신문방송국 대면 면접)

※ 면접 시간은 응시자의 일정에 따라 지정될 예정입니다.

지원방법

- 대학주보 홈페이지 배너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제출 (대학주보 : media.khu.ac.kr/khunews)

문의

- 010-3185-1405 (이지수 편집장)
- 인스타그램 : @khunews_jubo
- 이메일 : khunews@khu.ac.kr
- 카카오톡 : 대학주보

활동혜택

- 기사 작성 시 원고료 지급
- 해외 취재 기회 제공
- 기자 명함 제공

